

일본대중문화의 실체를 밝힌다

《일본대중문화》 펴낸 김필동 교수

김필동 교수는 지금까지 출간된 일본대중문화 관련서 대부분이 수박 겉핥기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본문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몇몇 논객들 때문에 일본대중문화는 성과 폭력이 전부라고 오해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본대중문화의 발생과 발달과정을 각 분야별로 풍부한 사례를 인용해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일본대중문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필동 교수(42, 세명대 일본학과)가 펴낸 《일본 대중문화》(새움)는 첫머리부터 공격적이다. 김교수는 지금까지 출간된 일본문화 관련서적의 대부분이 일본대중문화의 퇴폐적이고 말초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통 일본문화론이 태부족해

“대부분의 책이 특정 분야만 다루고 있거나, 마니아층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종사자들이나 몇몇 문화평론가들, 심지어는 몇달 일본에 체류한 경험이 전부인 여행객이나 연예인들조차 일본대중문화론을 쓰고 있습니다. 정통 일본문화론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기린원) 이후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죠.”

특히 김교수는 이 책에서 언론을 비롯한 각 매체에 일본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김지룡씨와 이규형씨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교수가 볼 때 김지룡씨가 쓴 《비상구 없는 일본의 에로스》(시사폴러스)는 차라리 ‘매춘입문서’에 가깝다. 이규형씨가 펴낸 《J·J가 온다》(해냄) 역시 일본대중문화를 밀천 삼아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씌어진 책일 뿐이다.

“문제는 일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약의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섹스와 폭력이 일본대중문화의 전부라고 오해할 겁니다. 경박한 가치관을 전파하고 저급한 문화를 조장하는 그들을 이용하는 일부 언론에도 문제가 있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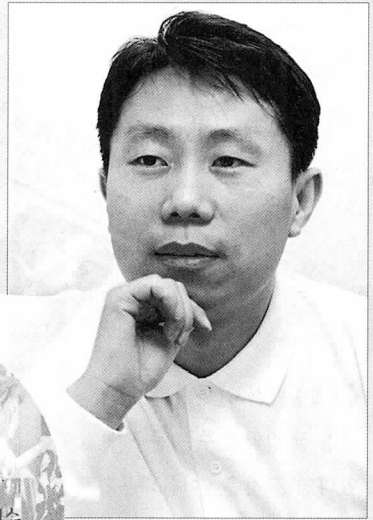
김교수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 자세에도 일침을 가했다.

“일본문화개방을 앞두고 우리는 공청회 한두번 연 것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TV 프로그램이 일본의 프로그램을 슬하게 베꼈고 가수들 역시 일본 곡들을 표절해 불렀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침략은 지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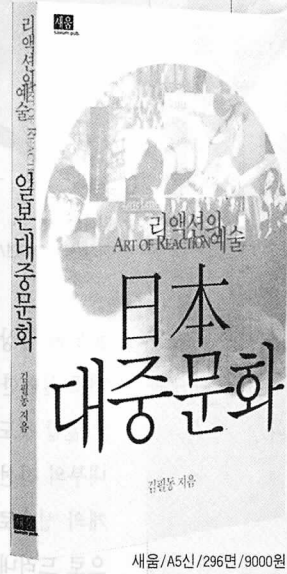
국민의 사랑 속에서 발전한 일본대중문화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김교수의 분석과 성찰이 돋보이는 대목은 제2부 <이것이 일본대중문화다>이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개화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풍부한 자료를 활용해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대중문화의 발생과 발전 양상, 대중문화가 일본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을 가요, 영화, 스포츠 등 각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한다.

“일본대중문화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좌절한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일본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수와 영화배우,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은 조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본의 대중문화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했고, 일본사회에서 존중받고 있



김필동 교수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대중문화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김교수는 우리가 흔히 듣는 ‘딴따라’라는 말이 우리 대중문화의 위상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문화인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다. 김교수가 남인수, 김정구, 이미자, 김 일, 홍수환 등 우리 국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우리 대중문화를 이만큼이나 성장시킨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딴따라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대중문화는 1970년대 이후 정치권력에 탄압받았으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며 성장·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서구의 향락적 소비문화에 젖어 대중문화의 후원자 역할을 외면해놓고서 우리 대중문화의 수준을 문제삼았던 것이죠.”

이제 일본대중문화의 전면적인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교수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 오히려 우리 대중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교수의 마음 한 켠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우리가 일본문화에 동화돼 또 다시 그들의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 최갑수 기자